

# 부산왜관과 왜관무역

## 조일 양국의 외교와 무역의 중심 공간



### 1 개요

왜관은 조선에 있었던 일본인의 거류지이자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외교와 무역이 이루어지던 공간이다. 조선전기 조선 정부는 왜구가 자주 침입하여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자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를 정벌(1419년)하는 한편 회유책으로 포구를 개방하여 합법적으로 교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조선에 와서 정착하는 일본인이 늘어나고 언어·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자 삼포에 왜관을 설치하여 일본인들이 아무 곳이나 정박하고 체재하지 못하도록 통제했다.

왜관은 1407년 부산포(釜山浦, 부산), 내이포(乃而浦, 진해)에 처음 설치되었고, 1418년 염포(鹽浦, 울산)에 추가설치 되었다. 이후 삼포 왜관은 일본인들의 분란 등으로 폐쇄와 설치를 반복하다 1547년 부산포 왜관만 남게 되었다. 한편, 1409년 상경하는 일본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한양에 동평관(東平館)이 설치되었다. 일본 사자의 상경 도로가 임진·정유전쟁 당시 침략로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1609년 일본 사자의 상경이 금지되고, 동평관은 폐쇄되었다.

임진·정유전쟁으로 조·일 관계가 단절되면서 왜관도 폐쇄되었다가 국교 회복을 목적으로 쓰시마에서 사자를 파견해 오면서 1601년 절영도(絶影島, 부산 영도)에 임시 왜관이 설치되었다. 그 후 조·일 국교가 재개되면서 1607년 두모포(豆毛浦, 부산 동구 수정동 고관(古館) 일대)에 정식으로 왜관이 설치되었다.

점차 조일 양국 관계가 안정되고 무역량이 늘면서 쓰시마에서는 큰 규모의 왜관을 요청했다. 1640년부터 1673년까지 여덟 차례에 걸친 조·일 간의 이관 교섭 끝에 이관 결정이 내려지고 1678년 초량(草梁, 부산 중구 광복동 일대)에 새롭게 왜관이 들어서게 되었다. 초량 왜관은 1868년(고종 9) 일본에서 메이지(明治) 신정부가 수립된 후 일본 외무성이 쓰시마로부터 대조선 외교권을 접수하고 초량왜관을 침탈하여 대일본공관(大日本公館)으로 이름을 바꿀 때까지 약 200년간 조일 양국 사이의 외교·무역의 무대로 기능했다.

#### ※ 왜관의 변천 양상

왜관수	소재지	설치연대	존속기간	비고
왜관의 병립 시대	부산포·내이포(제포)	1407년	12년	
	부산포·내이포·염포·가배량	1418년	1년	
	제1차 폐쇄	1419~1422년	4년	쓰시마 정벌
	부산포·내이포	1423년	4년	
	부산포·내이포·염포	1426년	84년	

	제2차 폐쇄	1509~1511년	3년	삼포왜란
단일 시대	내이포	1512년	10년	임신약조
병립 시대	내이포·부산포	1521년	24년	
	제3차 폐쇄	1544년	4년	사랑진왜변
부산 단일 왜관 시대	부산포	1547년	56년	정미약조
	제4차 폐쇄	1592~1601년	10년	
	절영도	1601~1607년	7년	임시왜관
	두모포(구관)	1607~1678년	72년	기유약조
	초량(신관)	1678년	195년	계해약조
일본의 왜관 점령		1872년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공사관으로 전환

## 2 부산왜관의 설치와 경관

조선시대 부산은 행정적으로는 동래부(東萊府) 관할 아래 있었고, 군사적으로는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慶尙左道水軍節度使營)에 속하는 해방(海防)의 요충지였다. 1407년 제포와 함께 부산에 처음 설치된 왜관의 위치는 명확하지 않으며, 현재의 부산진(釜山鎭) 시장에서 자성대(子城臺) 부근 일대로 추정된다. 이후 부산포 왜관은 일시 폐쇄되기도 했지만 임진·정유전쟁으로 조선과 일본의 국교가 단절될 때까지 200년간 존속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1601년 국교 재개 교섭 과정에서 강화교섭을 위해 조선으로 온 일본 사자를 대응하기 위해 절영도에 임시왜관을 설치했으며, 1607년까지 존속했다. 임시로 설치·운영된 절영도 왜관 건물은 무역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거나 강화교섭을 위해 온 사자들이 임시로 머물며 교섭하고, 숙식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일 양국 사이에 국교 재개 교섭이 진전되면서 1606년부터 정식 왜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일본인들은 조선 전기에 부산포 왜관이 있었던 곳을 왜관 부지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지만 왜란 이후 군사기밀 지역인 부산진성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1607년 부산진에서 서쪽으로 5리 떨어진 두모포에 왜관이 조성되었다. [관련사료](#) [관련사료](#) 두모포 왜관은 72년간 존속했는데, 조·일간의 외교·무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규정과 왜관 운영방침 등이 이 기간에 성립되었다.

두모포 왜관의 전체 면적은 약 1만 평 정도이고, 뒤쪽엔 구릉으로 이어지고 앞쪽으로는 바다가 있어 지세가 평이하고 낮았다. 동문 밖에는 좌자천(佐自川)이 흐르고 남쪽에 배를 대는 선창이 있었다. 왜관 안팎에는 하천이 흐르고, 바다가 가까이 있는 까닭에 왜관 내부는 습하고 풀이 무성하였다. 왜관 안에는 일본 사자를 접대하는 연향청(宴享廳)을 가운데 두고 동관과 서관이 있고, 각각 대청(大廳)과 행랑(行廊)을 갖춘 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국가의례가 행해지는 객사(客舍), 사찰 등을 비롯하여 왜관 뒷산에는 일본인의 무덤도 조성되어 있었다.

한편, 조·일양국 관계가 안정되고 무역량이 늘어나자 왜관으로 오는 일본 사자와 상인들이 많아지면서 일본 측에서는 왜관 부지가 협소하고, 남풍을 정면으로 받아 포구에 배를 대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계속해서 왜관을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1640년부터 1673년까지 여덟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초량으로 옮겨 가게 되었다.

초량왜관은 1675년 3월에 착공되어 1678년 4월에 완공되었다. 쓰시마의 목수, 미장이 잡역부 등 150명이 조선의 목수, 임부들과 함께 건축공사에 참여했다. 초량왜관의 동남쪽은 바다에 접해있고, 가운데에는 용두산(龍頭山)이 있고, 동남쪽 모서리 부분에 용미산(龍尾山)과 그 아래에 선창이 있었다. 규모는 10만 평 내외로 두모포 왜관에 비해 10배가 넓었고, 왜관 담은 처음에는 토담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1709년에 2m 높이의 돌담으로 바뀌었다. 출입문은 세 곳에 있었다. 동쪽의 수문(守門)은 정문에 해당하며, 북쪽의 연석문은 일본 사자가 국가의례를 위해 연향대청에 출입할 때 이용되었다. 서남쪽의 수문[水門, 무상문(無常門) 또는 부정문(不淨門)이라고도 함]은 왜관에서 사망한 일본인의 시체를 운반하는 문이었다. 왜관 담장 주위에는 여섯 개의 복병소(伏兵所)가 설치되어 왜관 출입을 관리했다.

초량왜관 건물은 용두산을 중심으로 서관과 동관으로 구분되었으며 서관에는 일본 사자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세 개의 대청(大廳)과 수행원들의 숙박을 위한 여섯 개의 행랑(行廊)이 있었다. 삼대청 건물은 조선의 조선과 일본의 건축양식이 혼합된 모습이었고, 육행랑은 좁고 긴 형태의 건물로 방에는 일본의 다다미를 깔았다.

동관에는 일본 측 총괄 책임자인 관수(館守)의 집무소이자 주거 공간인 관수가(館守家), 외교 교섭 담당자인 재판(裁判)의 재판가, 사무역(私貿易)이 이루어지는 개시대청(開市大廳), 무역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대관(代官)의 대관가, 동향사(東向寺), 무역품을 보관하는 창고, 포도막(捕盜幕) 등 치안 관련 건물 등이 있었다.

왜관 북쪽에는 임진왜란 이후 상경이 금지되어 조선 국왕을 직접 볼 수 없게 된 일본 사절이 외교 의례를 거행하는 초량객사(草梁客舍), 일본 사자를 접대하는 연대청(宴大廳), 조선 역관의 집무소인 성신당(誠信堂) 등이 있었다. 서관의 삼대청 옥행랑과 동관의 관수가, 재판가, 개시대청, 선창, 문, 외벽과 초량객사, 성신당, 연대청 등은 조선 측에서, 그 외의 건물은 쓰시마 측에서 운영했다.

왜관에는 400~500명의 성인 남자들이 쓰시마에서 파견되었는데, 관수, 재판, 대관, 조선어 통역을 담당하는 통사(通詞), 치안을 담당하는 금도(禁徒) 등을 비롯한 쓰시마의 관리나 쓰시마도주의 허가를 얻어 무역하러 온 상인들이었으며, 이들의 통행 범위와 왜관 출입은 엄격히 통제되었다.

### 3 왜관 무역

조선 전기에 삼포 왜관은 상경하는 일본 사자가 잠시 머물다 가는 임시 숙소였고, 조선과 일본 사이의 무역은 삼포 왜관 주변과 일본 사자의 상경도로에서 이루어졌다. 반면, 조선후기에는 일본 사자의 상경이 금지되고, 부산에만 왜관이 설치되면서 부산 왜관은 유일하게 조선과 일본 사이의 외교와 무역이 이루어지는 장소였다.

1609년 기유약조(己酉約條)의 체결을 통해 조선과 일본의 통교무역관계의 기본원칙이 성립되고, 1611년부터 본격적으로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637년에는 접대 비용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세견선(歲遣船) 20척이 모두 도항하는 대신 제1특송선과 제4선송사가 나머지 특송선과 세견선(歲遣船)을 겸대하도록 하는 겸대제(兼帶制)를 실시했다.

부산 왜관에서 이루어졌던 조·일간의 무역 형태는 조선정부와 쓰시마의 공적 거래인 공무역(公貿易), 조선 관리의 입회 아래 허가받은 양국 상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거래인 개시무역[開市貿易, 사무역(私貿易)], 밀무역 상인[잠상(潛商)]들의 불법적 거래인 밀무역이 있다. 공무역은 교역품과 교역량이 정해져 있는 정품·정액제인 데 비해 사무역은 기본적으로 교역품과 교역량에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구분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었다.

공무역에는 일본에서 해마다 찾아오는 연례송사(年例送使)들이 가져온 의례적인 진상(進上)에 대해 조선정부에서 주는 회사(回賜, 답례)와 그들의 공적인 청구물에 대한 사여(賜與), 그들이 사적으로 가져오는 물품에 대한 공무(公買)가 있었다. 일본의 수출품은 구리, 납, 동남아시아산 물소뿔(水牛角), 단목(丹木), 명반(明礬), 후추(胡椒) 등이었다. 이에 대해 조선 정부에서는 일정한 교환 비율에 따라 목면(木棉)을 지급했다. 그러나 17세기 전반 이후 일본에서 면포의 상품화가 이루어지고 조선 목면의 품질이 떨어지면서 목면의 일부를 쌀[공작미(公作米)]로 바꾸어 지급했다.

개시무역은 초기에는 한 달에 세 번 열리다가 1610년부터 한 달에 여섯 차례(3, 8, 13, 18, 23, 28일) 왜관 안의 개시대청에서 열렸다. 이 외에 특별한 날 열리는 별개시(別開市), 동래부에서 5일마다 왜관에 식량과 반찬을 지급할 때 관례적으로 열리는 '오일개시(五日開市)'도 대략 17세기 중엽부터 시작되어 1708년까지 이루어졌다.

17세기부터 18세기 전반까지 개시무역에서 조선 상인들은 주로 금, 은, 구리 유향, 납 등의 광산물과 단목·흑각·후추 등 동남아시아 물산을 구입하고, 조선산 인삼과 비단실(生絲), 사릉(紗綾) 등 중국산 비단류를 판매했다. 이를 통해 조선산 인삼과 일본산 은의 직접교역, 중국산 생사·견직물과 일본산 은의 중개무역이 이루어졌다.

개시무역에는 관청에서 발급한 행장(行狀)을 가진 특권상인만 참여할 수 있었다. 행장이 없는 경우 밀무역 상인으로 간주되어 사형에 처해졌다. 개시무역은 조·일 양국 관리들의 감독 아래 개시대청에서 이루어졌다. 개시무역을 담당한 조선 상인은 동래상인으로 1678년에 20명을 정했다가 1691년 30명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에는 서울상인과 개성상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동래상인은 동래 출신의 상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왜관에서 대일무역에 종사했던 상인을 의미한다.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중국과 일본의 직접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개시무역이 열리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다. 18세기 후반에는 빗과 비녀 등의 재료로 사용되는 조선산 소가죽, 소뿔과 소 발톱과 인삼을 판매하고 구리를 구입하는 등 무역품에 변화가 생기고, 개시무역은 점차 쇠퇴해 갔다.

개시무역이 쇠퇴하면서 상인의 수도 줄어들었고, 19세기에는 동래부의 향리·군관 등이 동래상인이 되어 대일무역에 종사하기도 했다. 한편, 왜관에서 일본어 통역을 담당했던 역관(譯官)이 개시

무역과 동래상인의 거래를 관리하면서 무역에도 관여하여 부를 축적하기도 했다.

개시무역 이외에 왜관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상대로 매일 아침 생필품(쌀, 야채, 생선 등)을 왜관의 정문(수문 守門) 밖에서 매매하는 조시(朝市, 새벽시장)도 이루어졌다. 조시는 상설화되면서 시장이 열리는 시간이 새벽부터 오후 5~7시까지로 늘어났다. 조시에 물건을 팔러 온 상인은 초량촌 주민으로 여성이 많았다. 조선 군관들의 감시와 통제 아래 매매가 이루어졌지만 일본인 남성과 조선인 여성이 자연스럽게 접촉하면서 교간(交姦) 사건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되기도 했다.